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8)

避將安往
피 장 안 왕

피한들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業報)라고 말하여 자기가 지은 만큼 받아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잘못이라면 업보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에 대한 응분(應分)의 책임을 져야 맞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책임을 지우는 사회 시스템으로 사법적(司法的) 조치가 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때는 언제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다. 소인(小人)이라면 윤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관심 밖이니까 그렇다고 치부하더라도 대인(大人)을 자처하는 사회지도층은 그래서 안 된다. 대인을 자처할 터라 떳떳하게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역사에도 자기가 저지른 일로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이를 모면할 방법을 찾으려는 소인이 있고 또 의연하게 대처하여 곤경 중에서도 최후까지 체면을 유지하는 대인이 있다.

금(金)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완안량(完顔亮)은 희종(熙宗)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에 오른 사람으로 12년간이나 황제의 자리에 있었다. 황제로 있는 동안 항상 과거 금(金)이 송(宋)을 공격하여 완전히 무너트리지 않고 화의(和議)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의 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금(金)의 국위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목적이 좋다고 하여도 어떤 일을 해도 편찮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는 마음에 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면서 남송을 정벌하려는 준비를 진행하였고, 끝내 남송 정벌군을 일으켰다. 그 위에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려고 전선에 나아가기까지 하였으니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황(戰況)은 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송군(宋軍)과의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오히려 패배를 받던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세력이 황제가 도움을 받음을 타서 새 황제를 세웠고 결국 다른 사람을 추대하여 황제로 올렸는데, 이렇게 황제에 오른 사람이 금(金)의 5대 황제인 세종(世宗)인 완안포(完顔夔)이다.

전쟁 중에 황제가 두 명인 상태가 된 금(金)이 남송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장강(長江) 전선에 나가 있는 완안량의 입장에서는 다시 군사를 돌려서 새로 등극한 완안포를 공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송과의 전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의 기로(岐路)에서 있었다.

결국 완안량은 일단 남송을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도읍에서 새로 등극한 황제 쪽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인진 남송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죽기로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기회만 있으면 도망하려고도 하였다. 드디어 사건이 발생했다. 완안량이 장강을 건너 태주(泰州)를 침범하려고 도강작전(渡江作戰)하려고 하는데, 호기(驍騎)장군 고승(高僧)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휘하는 무리를 유혹하여 도망가려는 사건이었다.

이 일은 발각되어 관련자들을 모두 참형(斬刑)으로 다스렸지만, 이후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는 초조하였고, 이에 군령을 더 강하게 만들어 발표하였다. “군사(軍士) 가운데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대(領隊)를 죽이며, 부장(部將) 가운데 도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수(主帥)를 죽이라.”

그뿐 아니었다. 다음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감히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으며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병사들의 입장은 어떤가? 강 건너에는 남송군이 금(金)의 도강(渡江)을 막으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죽으러 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완안량은 병사들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금(金)의 도읍에서는 새 황제가 등극하였는데, 전선(戰線)에 있는 황제는 병사들에게 죽기를 강요한 셈이니 도망하여 새로 등극한 황제 편에 서겠다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절서로도통(浙西路都統)인 아율원의(耶律元宜)가 완안량에 반대하는 변란(變亂)하기로 결정하자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드디어 새벽에 완안량을 호위하는 병사

가 교대할 시간에 바로 변란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주도자인 아율원의가 먼저 그 무리에 말하였다. “새로운 천자가 이미 요양(遼陽)에서 응립되었으니, 지금 마땅히 함께 대사(大事)를 거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온 군사가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사, 즉 큰일이란 변란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병사들은 크게 찬성하였다.

다음 날 새벽에 아율원의·아율왕상이 무승군총관(武勝軍總管)인 도극단수소(圖克坦守素)·명안(明安)인 당고오월 등과 더불어 무리를 인솔하고 완안량이 묵고 있는 어영(御營)으로 범접해 갔다. 완안량이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송군(宋軍)이 엄습하여 도착한 것으로 여기었지만 근시(近侍)인 대경선(大慶善)이 말하였다. “사태가 급하니 마땅히 나가서 피하십시오.”

이 말에 변란임을 바로 알고서 완안량이 말하였다. “피한들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스스로 난병(亂兵)과 싸우려고 활을 잡으려 하였지만, 그 전에 난병이 쏜 화살을 맞고 땅에 넘어졌고 난병의 칼날은 그 목에 꽂혔다. 그래도 수족(手足)이 오히려 움직이지 목을 때어 죽었다. 그를 위하여 진압하려고 호기(驍騎)사(驍騎指揮使)인 대반(大磐)이 군사를 정돈하고 달려왔지만 이미 그가 구원하려 한 완안량이 죽은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완안량은 독재하였고, 혹독한 정치를 하여 잘못된 것이 많았지만 최후에 자기가 도망할 길이 없음을 알고 도망치지 않고 죽었다. 그래도 대장부(大丈夫)의 기개(氣概)는 살아 있었다고나 할까?

요즈음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소되어도 요리조리 피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피한들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대장부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만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하여 땅을 샀던 것이 밝혀지자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서슴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여자의원만이 진리를 아는 사람 같다. 잘못이나 실수는 저지를 수 있지만, 이것을 알았을 때, 떳떳하게 대하고 책임지는 지도자가 많기를 바란다.

마·창·진종친회 제76회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

지난 5월 14일 마창진 종친회는 전임 권태형 회장 신임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축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회 정기총회를 장원마산합포구 성지바로셀로나홀에서 개최하였다. 권영삼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권금현 재무국장의 결산보고, 권일수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날 권오수 신임회장은 마창진 종친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축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2부 만찬회에는 서로간의 안부를 나누는 훈훈한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권영삼 사무국장



행주서원 춘향제 봉행

고양시 행주서원 춘향제가 5월 4일 10시 30분 권오돈 추밀공파대종회 직무대행, 권경일 안동권씨 석주공 종회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강홍강 고양향교 전교, 정대재 용강서원 원장, 이충구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천광필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이충구 총장사 제전위원장, 서은원 고양시 문화예술과장, 선호술 성균관 유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초헌관은 강미숙 경기도의회 원내대표(국민의힘), 아헌관은 김영호 고양유림대표, 종헌관은 이충구 원일 총장사제전위원장, 선호승 보성선씨 문중대표, 정종연 압해정씨문중대표 등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대축에는 권경택 원일행주서원 원장, 집례해설에는 송민 행주서원 예절강사, 시조는 권은경이 맡았다. 기공사에는 권윤장군을 비롯하여 부원수 선거이, 조방장 조경 등 일곱 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다. 초헌관 강미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중한 경험에 감사드



린다. 서원 주변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역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상철 집앞 - 권춘섭 집앞 버스정류장 이름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황량한 들판 근방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다. 이름은 <권춘섭 집앞 정류장>이다. 이 정류장은 원래 그의 아버지인 권상철(權相哲, 1916-2007년생)씨의 이름을 딴 '권상철 집앞 정류장'이었다. 아들인 권춘섭(權春燮, 1950년생, 북야공과 34세)씨가 정류장 이름을 이어받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의 이름을 딴 정류장이다. 이 정류장이 생긴 배경엔 한국의 열악한 대중교통 사정과 가족 사랑이 담긴 사연이 있다. 너른 들판 너머로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태백시 삼수동의 외딴곳에 권상철·김복녀(義城, 金福女, 1924-2010) 부부가 배추, 감자,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인근 20분 거리에 식당, 학교가 있지만 버스 타기가 수월치 않았다. 1999년 김복녀 여사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야하지만 힘들자 권상철씨가 태백시에 민원을 넣어 정류장을 만들길 했으나 주위에 지형지물도 없고 하여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 '권상철 집앞'이라는 것이다. 권상철씨가 작고한 뒤 이 정류장은 그의 아들 이름을 따 '권춘섭 집앞 정류장'이 됐다.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다 강릉에 나가 살던 권춘섭씨는 40대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함께 살던 아내 김혜 김씨(1955-2023)도 당뇨합병증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홀로 배추 농사를 짓고 있고, 자신의 자녀(權五坤, 權五鎭)들도 “언어가 돌아오듯이” 이곳으로 돌아와 살길 바란다 했다. “아들이 60세(2034-5년경)이 되면 들어



권춘섭씨와 정류장

올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고향 찾아와야 하잖아. 내가 죽으면 아들이 정류장 이름 이어받겠지. 가보야 가보.”라고 한다. 이 정류장이 언제 까지 있을지도 모를 일이나 어쨌든 명물임은 사실이고, 권문의 아내사랑이 낳은 작은 미담이지만 그의 미는 매우 크고 앞으로 그 ‘권씨 집앞’ 정류장이 대대로 이어지는 태백의 명물이며 권문의 미담으로 남아 전설이 될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권중달통감학장학회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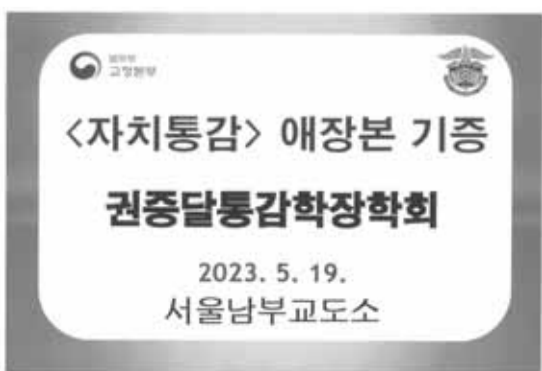
권중달통감학장학회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자치통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인생을 설계하며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철재이사장과 권중달교수

권중달통감학장학회에서는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사회에 소외된 곳이나 중, 고등, 대학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군부대도서관 등에 애장본[자치통감] 전28권 세트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치통감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길 바라며 뜻있는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다립니다.

제1호 기증 권중달통감학장학회에서는 5월 19일 애장본 <자치통감> 한 질을 남부교도소에 기증



권중달통감학장학회 이사장 정철재

권중달통감학장학회 통감금강회원 모집

권중달통감학장학회는 <자치통감>을 소유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기관에 <자치통감>을 기증할 목적으로 통감금강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통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며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을 계획입니다.

통감금강회원들의 정성과 도움으로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1월 10,000원 | 1년 110,000원 | 3년 330,000원
- 기부금: 자유
- 회비 및 기부금 용도: 애장본 자치통감 기증
- 특전: 월1회 권중달교수 리더십 강의 (회원수 100명 이상)
- 계좌번호: 신한 100-036-290527 (예금주: 권중달통감학장학회)

함께 꿈을 키워나갈 통감금강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전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 주세요.